

민주당 김한길 대표 단독 인터뷰

“지방선거 승리위해 신당과 연대할 수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30일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6·4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승리를 위해 ‘안철수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또 변화와 혁신을 위해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이번 설 연휴에 느낀 호남 민심은.
▲올해만 세 번째 왔다. 그때마다 달랐다. 이번에는 상당히 용기를 얻었다. 특히 민주당이 변화·혁신에 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나서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호남민들 사이에는 민주당이 아쉬울 때는 호남에 기대고 잘 나갈 때는 좀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 뜻을 잘 살피서 내가 판단하겠다고 얘기했다. 조금 전에 질문한 예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이견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이 볼 때 나뉘려가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공천률 결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 언제쯤 결정할 건가.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률은 많이 정리돼 있다. 다만,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률(공천제 폐지 문제로) 내려가지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한쪽만 지금 스피드를 낸다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상향식 공천률이 이미 정해져 있다.

-과거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는 공천과정에서 호남의 경우 다른 지역과 별개의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향식)공천혁신위원회가 논의하는 과정에 일부에서 그런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톨로 만드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클 수 없다는 게 최고위원회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떤 지역에 전략공천을 한다는 것인가.
▲호남만 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이 많은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말한 건 아니다. 당 내외에서 최자·최강의 인물을 찾아 지방선거에 승리한다는 원칙에 맞춰 필요하다면 (전략공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후보의 경쟁력과 도덕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둘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도외시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 종북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6·25)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한이 사고를 여러 번 쳤지만 군사정권이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다. 북한 정규군에게 총 한번 쏘지 못했다. 전투 벌여 초진박살한 압도적 승리를 한 최초의 전투가 1차 연평해전이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일 때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종북 세력과 무슨 관계가 있었나.

-지금 호남민은 향후 대선에서 과연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노무현 후보를 모시고 선거할 때 선거 100일을 앞두고 지지율이 불과 14%였다. 그런데 대통령을 만들었다. 우리가 똘똘 뭉치고 혁신한다면 지방선거,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 정권교체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2월 임시국회 때 논의된 호남에서 관심 있는 법안이 많이 있는데.
▲3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다. 우선 박해자 최고위원이 발의한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과 광주국제수영선수권 대회 지원을 위한 국제경기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우리 지도부와 얘기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이미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의안을 근거로 관철할 것이다.

-정치공학적 요구지만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제안도 받겠다는 말인가.
▲국민이 어떻게 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일화·통합에 대해서는 지금은 선의의

변화·혁신위해 어떤 고통도 감수

호남서 민주당 기대 되살아나는 중

상향식 공천 톨 토대로 개혁공천

문화전당특별법 등 2월국회 관철

-아래 연대의 조건으로 호남 광역자치단체장 3개 중 하나를 민주당이 양보하라는 제안이 은연이다.

▲그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치공학적 거래로 비쳐진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측 경쟁이)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만 도와주는 결과를 낳아서 는 안 된다는 우려를 많이 듣고 있다.

-정치공학적 요구지만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제안도 받겠다는 말인가.

▲국민이 어떻게 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일화·통합에 대해서는 지금은 선의의

이달 중순 이산상봉 불투명

北 일주일째 무반응

정부, 북 호응 촉구

정부가 이달 17~22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제의한 지 2일로 꼭 일주일째 됐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서 시기를 납축이 편할 때로 잡으려던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먼저 하고 이번주부터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등 관련 시설 점검에 나서려던 우리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일단 시설 점검, 행사 준비 등에 2주가량의 실무적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주초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17~22일 상봉 행사 개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북한이 주초까지 우리가 제안한 상봉 시기에 동의해준다면 실무 준비를 서둘러서라도 17~22일에 상봉 행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북한이 지금껏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의도적인 지연 전술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 역시 키 리졸브 연습 전이 이달 중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답을 줄 것이라면 지금까지 주지 않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이산상봉을 하자고 했고 우리측에 날짜를 정하라고 해 놓고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북한에 조속히 반응을 보이려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만큼 일단 이번주 초까지는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제의에 침묵해 북한이 2월 말 이후로 상봉 시기를 바꿔 역제의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4월까지의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남북이 2월 말 이후 상봉행사에 합의해도 행사 당일까지 이산가족들이 맘을 쫓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추석 계기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상봉 나흘 전에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행사를 무산시킨 바 있다.

강운태시장, 삼성 ‘총장추천제 폐지’ 일조

삼성이 최근 논란이 됐던 ‘대학총장 추천제’를 백지화한 배경에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강운태 광주시장의 장시간 통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강 시장은 삼성의 대학총장 추천제가 문제되자 지난달 28일 오전, 평소 친분이 깊은 최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강 시장은 한 시간 가량의 통화에서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든, 삼성의 결정에 대한 반감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게 분명하다”며 심각성을 강조한 뒤 “우선 광주시장인 내가 죽을 지경이다. 경북대 100, 전남대 40의 비율이 있는데 시장은 될 하고 있는나고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회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강 시장은 “유보해야 한다. 왜 삼성이 사서 욕을 먹으려 하나”고 설득했고, 결국 삼성은 이날 대학총장 추천 할당제 백지화를 발표했다.

강 시장은 전남 시청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추천제는) 배려와 균형, 특히 사회 약자에 대한 공생정신이 많이 부족하다”며 “삼성에 지역대학을 좀 더 고려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이 광주에 가진사업부를 두고 지역경제에 공헌한 데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감사 드린다”며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삼성이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했나 걱정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에 北이탈주민 사랑방 문 열어

광주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방이 문을 열었다.

광주 광산구는 2일 “광산구 우산동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송광 한사랑방’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송광 한사랑방은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주민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규모는 복지관 2층에 131㎡이며, 상담실과 정착 교육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다.

광산구는 2012년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북한 이탈주민 한(가족) 사랑방 사업’으로 응모해 광주·전남 자치단

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국비 8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한사랑방’을 개소했다. 한사랑방의 위탁 운영 기관인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문화강좌와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높일 방침이다.

광산구는 지난달 28일 개소를 기념해 한사랑방에서 북한 이탈주민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과 설맞이 합동차례를 지내기도 했다. 광산구는 앞으로 구 보건소와 광주 고등안전센터, 하나 센터, 광산경찰서 등과 연계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와 취업, 법률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in Naju, featuring the slogan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 010-5587-3080.

Advertisement for '희망공인중개사' (Real Estate Broker) with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rent in various districts like Seogu and Hwajong, including contact details for 010-5536-0382.

Advertisement for '투자하라' (Invest Here) featuring a building and listing various commercial and residential units for rent, with contact number 010-8248-6001.

Advertisement for '利川徐氏 尚書公 大同譜 編纂' (Leecheon Seo Family Genealogy)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Seoul and Gwangju, including phone numbers 02-793-8252 and 062-672-2002.